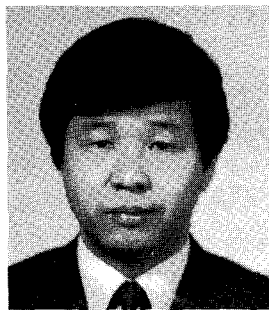


마비된 環境行政이 「페놀사건」 자초했다

영남 권의 대도시 수도물 정도로 유해폐수가 정수장까지 흘러들은 사건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폐수방류와 당국의 수질관리부재가 어우러져 빚었다는 점에서 충격도가 엄청나게 크다. 이건 정말 보통사태가 아니다. 비위약한 사람은 구토를 일으킬 만큼 심한 냄새를 풍겨 분유를 먹는 어린아이에겐 우유도 못먹이고 그 물로 만든 두부며 과자 콩나물 등은 먹기가 역겨워 모두 반품되는 소동은 지금껏 그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결말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예고하는 불길한 症候群이다. 대구·부산·창원·마산 등 낙동강물을 마시는 대도시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킨 원인물질은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페놀로 밝혀졌다. 페놀은 악취가 심한 무색결정으로 농약·살균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를 계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처는 지난 2월부터 유해독극물질로 분류 관리하고



尹基高
〈한국경제·사회부기자〉

있다. 특히 페놀은 정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클로로페놀이란 물질로 변해 악취가 5백~6백배나 높아지며 농도가 1ppm을 넘을때 암이나 중추신경장애 등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도물에서 심한 악취가 풍긴 까닭은 페놀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수장에서 염소를 평소보다 10배나 많이 투입한 탓도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정부의 상수도행정과 수도관리가 얼마나 엉망이며 눈가리고 야옹식의 단면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부산·창원·밀양·삼랑진·마산·대구 등 8

백만명 시민들의 젖줄인 낙동강水系를 오염시켰나 하는 것이다.

이번 오염의 주범은 영세업소도 아닌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斗山전자로 밝혀졌지만 환경행정의 공백도 이를 부추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수원수질환경기준엔 페놀이 제외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이나 飲用水기준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의 페놀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을 보면 美國·프랑스·EC국이 0.001ppm,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가 0.002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 음용수 기준도 美國이 0.001ppm WHO가 0.002ppm으로 국내기준 0.005ppm보다 5배나 강하게 관리되고 있다. 공해업소들의 배출허용기준도 국내기준이 5ppm으로 우리나라와 생활형편이 비슷한 台灣의 1ppm보다도 5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는 등 각종 기준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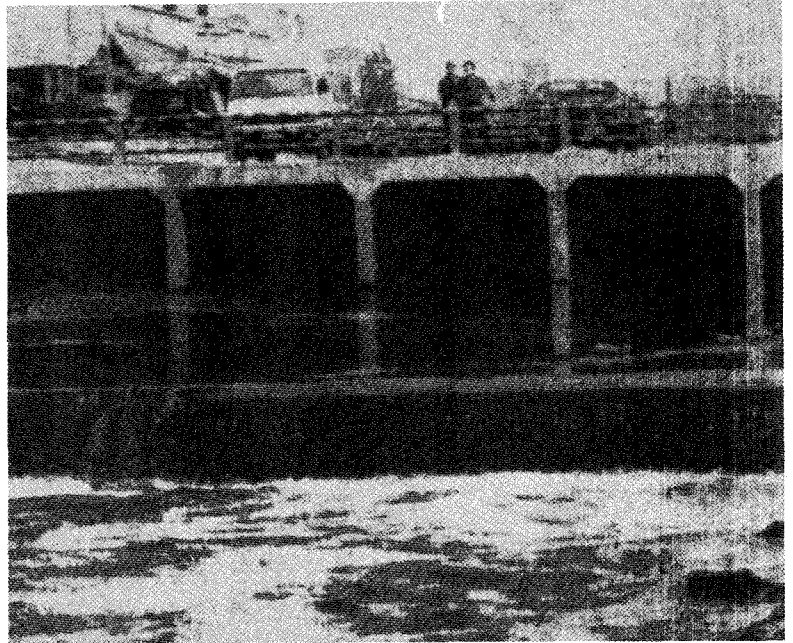
이처럼 국내 기준이 크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의 주무부처

인 환경처의 한관계자는 폐놀오염이 낙동강하류로 한창 확산되던 지난 3월20일 폐놀은 냄새가 고약할 뿐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며 국내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환경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마비행정은 수도물을 정수하고 공급하는 보사부·시·도도 마찬가지다. 폐놀오염이 영남권을 강타하기 보름이나 앞선 3월2일 구미에서 이미 폐놀이 검출됐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재빨리 마련하지 않은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이때 손을 썼더라면 폐놀오염으로 인한恐慌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폐놀오염의 주범은 역시 이를 배출한 공해기업이다. 그것도 국내에서 내노라는 斗山전자가 이런일을 저질렀으니 영세공해기업으로 인한 오염행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지검에 의하면 斗山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모두3백25t의 폐놀을 남몰래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해왔다는 것이다. 폐놀을 처리하는 소각기가 고장났다고 비밀하수구를 통해 낙동강상류로 유해폐수를 쏟아버렸다니 제정신을 가진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4개월씩이나 거리낌 없이 방류한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몰양심과 반사회적 악덕기업이 버젓이 국내경제계를 이끌어 가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는 斗山전자뿐만은 아닐 것



환경처의 한관계자는 폐놀오염이 낙동강하류로 한창 확산되던 지난 3월20일 폐놀은 냄새가 고약할 뿐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며 국내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환경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다.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가동비를 아끼기위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기업들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햇동안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소가 3천6백여곳에 이른다. 국내공해 배출업소가 1만 5천개인 것을 보면 4개업소당 한 번꼴로 적발된 셈이다.

환경오염은 일단 저질러지면 국민전체가 피해를 볼뿐아니라 이를 원상회복시키는데도 시간과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공해오염을 막는 길은 바로 나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데서 비롯된다.

환경학자들은 지구종말을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마실물과 숨쉬공기가 없어지는 날로 꼽고 있다.

이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오염을 막는데 힘을 합쳐 더럽혀진 국토를 되살릴때다. 그래야만 대대로 이나라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떳떳해질 수가 있다. ◻